

조선후기 悼亡錄의 편찬과 그 의미*

鄭雨峰**

I. 문제 제기	III. 조선후기 悼亡錄 편찬의 의미
II. 조선후기 悼亡錄의 편찬	IV. 마무리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 후기의 문인이 남긴 저술 가운데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悼亡錄을 대상으로 悼亡詩文 창작 및 향유의 변화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悼亡錄은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들을 모아놓은 단행본 저술을 가리킨다.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을 悼亡文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도망문은 한시 형식의 悼亡詩이거나 祭文, 墓誌銘, 行狀 등의 형식을 취한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통상적인 애도의 방식과 다른 방향으로 도망문을 창작하고 향유하려는 경향이 새롭게 나타난다.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현상으로 도망록의 편찬에 주목하였다. 도망시나 도망문을 묶어서 하나의 단행본 형태로 편찬하는 것이 조선후기에 이르러 나타난 주목할 변화의 하나이다. 沈魯崇의 『枕上集』 및 『眉眼記』는 자신이 쓴 도망시와 도망문을 단행본의 형태로 묶은 것이다. 때로는 한문으로 작성된 도망문들을 한글로 번역하여 책으로 묶기도 하고, 아내의 언행을 한글로 작성하여 책으로 엮기도 하였다. 金禮淵의 『壽名錄』은 한글로 쓴 부인언행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任靖周가 아내의 죽음에 대해 기록한 悼亡文을 한글로 번역하여 엮은 『癸酉錄』이 특별하다. 南一元은 悼亡詩 100수 연작시를 짓고, 俞萬柱에게서 서문을 받았다. 도망시를 모아놓은 『悼亡詩卷』은 현재 확인되지 않지만, 100수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도망시를 창작하고 이를

*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책으로 엮었다는 사실은 任再堂이 『갑진일록』에 102수에 이르는 도망시를 남긴 것과 함께 悼亡詩文의 문학사적 흐름 속에서 기억해야 할 점이다.

주제어 : 도망시, 도망문, 도망록, 심노승, 임정주, 김예연, 신용순, 남일원, 수명록, 계유록

I. 문제 제기

이 논문은 조선 후기의 문인이 남긴 저술 가운데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悼亡錄을 대상으로 悼亡詩文 창작 및 향유의 변화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悼亡錄은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들을 모아놓은 단행본 저술을 가리킨다.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을 悼亡文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도망문은 한시 형식의 悼亡詩이거나 祭文, 墓誌銘, 行狀 등의 형식을 취한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통상적인 애도의 방식과 다른 방향으로 도망문을 창작하고 향유하려는 경향이 새롭게 나타난다.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현상으로 도망록의 편찬에 주목하고자 한다. 悼亡詩나 悼亡文을 묶어서 하나의 단행본 형태로 편찬하는 것이 조선후기에 이르러 나타난 주목할 변화의 하나이다. 沈魯崇의 『枕上集』 및 『眉眼記』는 자신이 쓴 도망시와 도망문을 단행본의 형태로 묶은 것이다. 때로는 한문으로 작성된 도망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책으로 묶기도 하고, 아내의 언행을 한글로 작성하여 책으로 엮기도 하였다. 金禮淵의 『壽名錄』은 한글로 쓴 부인언행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任靖周가 아내의 죽음에 대해 기록한 悼亡文을 한글로 번역하여 엮은 『癸酉錄』이 특별하다. 南一元은 悼亡詩 100수 연작시를 짓고, 俞萬柱에게서 서문을 받았다. 아쉽게도 작품은 현재 확인되지 않지만, 100수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도망시를 창작했다는 사실은 任再堂이 『갑진일록』에 102수에 이르는 도망시를 남긴 것과 함께 도망시문의 문학사적 흐름 속에서 기억해야 할 점이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제대로 소개되거나 연구되지 않은 신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할 것이다. 규장각에 소장된 김예연의 『수명록』과 한글박물관에 소장된 『계유록』은 그동안 학계에서 조명되지 않은 신자료인데, 한글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어야 할 자료이다.¹⁾ 辛應純의 『內喪記』는 喪禮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지만, 도망록과 관련하여 다루지는 않았다.²⁾

1) 金禮淵과 『수명록』에 대해서 양승민이 김예연의 『화왕본기』를 다루면서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한 바 있다.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癸酉錄』은 그동안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신자료이다. 양승민, 「국문 창작 가전체소설 화왕본기와 그 한문번역본」,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181~222면.

2) 신용순의 『내상기』를 喪禮에 초점을 맞추어 다룬 연구성으로 정승모, 「성재 신용순의 내상기를 통해본 17세기초 상장례 풍속」, 『장서각』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53-80면; 최배영, 「성재집

II. 조선후기 悼亡錄의 편찬

조선후기에 편찬된 悼亡錄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다음과 같다.

서명	작자	아내(성명, 생몰년, 향년)	언어	형식
甲辰日錄	任再堂(1686~1726)	豐山洪氏(1683~1724) 42세	한문	일기
癸酉錄	任靖周(1727~1796)	光山金氏(1727~1753) 27세	한글	산문
枕上集	沈魯崇(1762~1837)	全州李氏(1762~1792) 31세	한문	한시/산문
眉眼記	沈魯崇(1762~1837)	全州李氏(1762~1792) 31세	한문	한시/산문
壽名錄	金禮淵(1781~1837)	昌寧成氏(1779~1809) 31세	한글	언행기
悼亡詩卷	南一元(1834~1894)	淸州韓氏(1832~1856) 25세	한문	한시

새롭게 나타난 悼亡錄의 편찬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의 하나는 한글로 제작된 도망록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도망문은 대부분 한문으로 창작되었으며, 일부 한글로 쓴 작품이 전하고 있다. 金禮淵(1781~1837)의 『壽名錄』은 한글로 쓴 言行記와 「招魂」을 수록한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任靖周(1727~1796)가 아내의 죽음에 대해 기록한 한글 도망문을 모아놓은 『癸酉錄』 또한 주목해야 할 자료이다.

悼亡文은 대부분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일부 한글로 된 도망문은 대개 낱장 형태의 제문이다. 그런데 金禮淵의 『壽名錄』은 죽은 부인의 평소 言行을 매우 상세하게 한글로 창작하며, 그 뒤에 「招魂」을 수록한 단행본 저술이라는 점에서 기왕의 작품과 크게 구별된다. 아내가 작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격려하는 말들을 많이 수록하였다. 예컨대 세상을 뜨기 사흘 전에도 작가에게 남자로서 행하면 행하고 그치면 그쳐야 하거늘 제대로 행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작자가 기록한 아내의 모습을 보면, 학식 있고 교양 있는 여성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켰다. 끝에는 한글로 창작한 「초혼」이 실려 있다. 『수명록』의 저자 김예연은 「花王本記」라는 한글 가전체소설을 창작하기도 하였다. 『수명록』과 연관 지어 한글 창작에 힘쓴 작가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을 통해본 내상의 의례와 음식 연구, 『차문화 산업학』 45, 국제차문화학회, 2019, 131~172면.

한글박물관에 소장된 『계유록』은 임정주가 아내 광산김씨의 죽음을 애도한 글을 모아놓은 책이다. 본래 한문으로 쓰인 것을 한글로 번역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목록에는 「데문셋」, 「상병시말」, 「꽤셔디」, 「꽤셔후디」, 「경명들」, 「셔폐함」, 「셔폐독상」, 「계유록발」 등 아내를 애도하는 다양한 글이 여러 편 제시되어 있다. 실제 책에는 목록에 거론된 이들 작품이 다 실려 있지는 않고, 일부 작품만 수록되어 있다. 아마 전승 과정에서 일부 유실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여러 편의 글들을 한글로 번역하고 그것들을 한 곳에 모아 단행 저술로 편찬한 것은 그 사례가 매우 드물다.

위에 제시한 도망록 중에서 任再堂(1686~1726)의 『甲辰日錄』은 아내의 죽음 이후의 생활 및 어머니의 죽음 등을 다룬 내용을 일부 수록하고 있지만, 이 일기의 대부분은 아내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 작자가 겪어야 하는 슬픔과 고통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悼亡錄의 한 형태로 취급하고자 한다.

도망록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아내의 상장례 절차를 소상하게 기록한 『內喪記』는 도망록과 관련하여 주목할 자료이다. 辛應純(1572~1636)의 『內喪記』는 아내의 喪葬禮 절차를 자세하게 기록해 둔 것이다. 대개 부모와 스승 등의 상장례를 다룬 자료는 여럿 있지만, 이처럼 아내의 상장례를 다룬 자료는 드물며, 성책 고문서의 형태로 전하는 것은 더욱더 드물다.³⁾ 『內喪記』는 신응순이 아내 瑞山柳氏(1571~1615)의 상을 당한 후 제반 절차와 賓客 성명 및 弔狀 송부자 명단, 부조 물품, 친인척과 주변 사람이 지은 挽章, 慰狀 등을 일기와 雜記 형태로 작성한 성책 고문서이다. 서산유씨가 1615년 5월 28일에 죽은 후 1617년 7월 15일 禘祭를 지내기 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상장례 절차를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辛應純은 자가 希淳, 호는 省齋, 본관은 寧越이다. 7대조 辛保安이 영광군수로 내려온 이래로 그의 집안은 전라도 영광에서 세거하였다. 정유왜란 당시에 향교의 위판과 전적을 피란시켜 표창을 받았고, 沙溪 金長生이 召募使로 활동할 때에 참여하였다. 1603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牛溪 成渾의 혐의를 벗겨주기 위해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光海君 때에 廢母論이 제기되었을 때는 두문불출하였으며, 인조반정 이후 이괄 등이 난을 일으키자 倡義하였다. 이로 인해 영광군수들에 의해 여러 번 천거되었

3) 金元行이 쓴 「丁亥內喪記」는 아내의 상장례에 대해 적어놓은 것으로, 분량이 짧으며 성책 단행본은 아니다. 金元行, 『漢湖集』, 「丁亥內喪記」, 『한국문집총간』 220, 한국고전번역원, 2001.

고, 1634년 禧陵參奉에 제수되었지만 나가지 않았다.⁴⁾

그는 禮學에 밝았던 인물로, 문집 『省齋集』에는 「內喪雜義」가 수록되어 있다. 아내의 상례와 관련된 제반 절차 및 논란되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둔 저술이다. 여기에서 살핀 『內喪記』와 같이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력 43년(1615) 5월 28일 초경에 아내 서산유씨가 출산 중에 운명하였다.

○ 사월 그믐에 하혈이 있었고, 5월 보름에는 더 심했다. 여덟 번째 딸을 낳을 때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생긴 증세라고 생각했다. 5월 20일이 되니 달같이나 주먹만한 핏덩이가 하루에도 두세 차례 나와서 둘째 아들에게 증세에 맞는 약을 구해보라고 시켰는데, 이날 아침에 들어와서 약을 복용해보지 못했다. 저녁식사 때가 되어 피곤하게 누워서 제대로 먹지 못하였는데, 복통이 있고 하혈을 많이 해서 그러한 것이라고 여겼다.⁵⁾

위의 인용문은 『內喪記』 중에서 「雜記」 부분이다. 출산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아내가 임종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먼저 작자는 출산하기 전에 일어났던 아내의 이상 증상을 서술하였는데, 아내가 위중한 상황에 있었음을 미리 알아채지 못하였던 점을 부각시켰다. 下血이 계속 있었지만, 작자는 전에 딸을 낳았을 때에도 그러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 것을 복통이 있고 하혈이 많아서였다고 여겼으며, 약도 복용하지 못했다. 이러한 위중한 증세가 결국은 아내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초저녁에 통증이 점점 커지고 오래가므로 出産의 징후가 있음을 비로소 알았다. 몸을 일으켜 동쪽을 향하고 이불과 베개를 첩첩이 쌓아 기대고 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胎衣가 내려오지 않아 다시 누워 조

4) 신응순의 집안과 행적에 대해서는 『古文書集成』 제28권, 靈光 寧越辛氏篇 II』에 실린 해제를 참조.
5) 辛應純, 「內喪記」, 『古文書集成』 제28권, 靈光 寧越辛氏篇 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萬曆四十三年歲在乙卯五月二十八日癸酉初更, 室人瑞山柳氏因產殞命. 柳氏自數年來多疾, 氣弱如此, 而又有娠, 頗有隱憂, 始爲之齋藥.(原注: 前則多產, 而不爲齋藥) 四月晦時有下血證, 至五月望時漸重, 而前在第八女產時, 亦有此證, 故以爲老境例證. 二十日以後, 則血塊之大, 如卵如拳, 一日之下, 或再或三, 使次子爲訪對證之藥. 是日朝入來, 不能試其藥. 夕時痛下困臥, 食亦不多, 因有腹痛之證, 而疑其血將下而然也.”

금 있으니 복통이 더욱 심하여 振寒하는 증세를 보였는데, 이전에도 배한과 슬
한의 증세가 있었다. 아픈 소리가 더욱 급해지며 좌불안석이었다. 내가 위로하
여 말했다.

“이미 호산을 하였으니 배가 아픈 것은 피가 다 빠지지 않아 그런 것이요.
약을 먹으면 그칠 것이니 진정하십시오.”

유씨가 대답하기를 “제가 어찌 모르겠소?” 라고 하면서, 더운 물을 급히 찾
았다.

이에 급히 더운 물과 탕갱과 탕약을 가져오게 하여 먼저 더운 물을 먹이고
서너 차례 숨을 쉬게 한 다음 홍화탕을 이어 먹이고 또 서너 차례 숨을 쉬게
했는데, 숨이 끊기고 말았다. 탕약을 여섯 일곱 차례 먹이고 잡초약을 이어 입
에 넣고 갱장도 이어 넣었지만, 마침내 깨어나지 못했다. 출산을 시작하여 여
기에 이른 것이 겨우 한 식경쯤 되었다.⁶⁾

1615년 5월 28일 아내가 출산을 하던 중 숨을 거두기 직전 임종의 상황을 아내와
나누는 마지막 대화를 통해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출산의 고통 속에 아이를 낳은
후 아내는 심한 복통과 몸이 떨리는 증세로 고통을 호소하였다. 작자는 그같은 아내의
고통스러운 외침에 대해 “배가 아픈 것은 피가 다 빠지지 않아 그런 것이므로 약을
먹으면 그칠” 것이라고 위로하였다. 목숨이 경각에 붙어 있던 아내는 다급한 나머지
“제가 어찌 모르겠소?”라고 하면서 더운 물을 급히 찾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더운 물과 탕갱과 탕약 등으로 조치를 취하였지만, 출산을 시작한 지 한 식경도 되지
않아 아내는 결국 세상을 달리하였다.

아내의 나이 45세로 같이 산 것이 거의 25년이다. 나는 일찍이 불행이 많아
서 16세에 부친을 여의고 19세에 모친을 여의었다. 그로부터 4년 뒤에는 동생
을 잃고 6년 뒤에는 큰아버지 상을 당했다. 그동안 20여 년간 환란을 겪고 빈

6) 辛應純, 「內喪記」, 『古文書集成 卷28권, 靈光 寧越辛氏篇 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初更痛勢
漸緊久, 乃始知其產候也. 自起向東, 疊堆衾枕而俯倚, 俄而產子. 胎衣則不下, 又更臥處, 小頃痛腹甚
急, 又有振寒之證, 乃前日背寒膝寒之證也. 痛聲甚急, 身不安席. 余乃慰解之曰, “既已好產矣. 腹痛必
是血未下而然也. 服藥則必止. 何不鎮定? 柳氏答曰: ‘妾豈不知? 求湯水甚急. 於是促湯水湯羹湯藥,
則湯水既入飲之, 止於三四, 吸紅花湯, 繼入飲之, 又止於三四吸, 因以氣絕. 湯藥六七服, 及雜草藥連
注于口, 羹漿亦連注, 而竟不得蘇. 自產時及此, 纔可一食頃也.”

천을 함께 한 사람은 다만 아내였는데, 마침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 비유 하건대 한 칸 집에 세 기둥이 모두 쓰러지고 기둥 하나만 홀로 남은 것이다. 어떻게 마음을 가누겠는가? 하늘이 필시 병든 나를 미쳐서 쓰러지게 하려는가? 하늘이 필시 나의 아홉 자식들을 얼어죽게 하려는가? 내가 하늘에 죄를 지은 것이 과연 무슨 일이길래 하늘이 재앙 내리는 것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辛應純은 16세에 부친을 여의고, 19세 때에는 모친을 여의었다. 이어서 동생과 큰아버지의 상을 당하였는데, 이제 25년 동고동락했던 아내를 떠나보내게 되었다. 아내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결국은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던 점에 대해 부각시켜 서술하였던 작자는 아내마저 떠나고 난 뒤의 상황을 ‘한 칸 집에 세 기둥이 쓰러지고 기둥 하나만 홀로 남은 꼴’이라고 비유하였다.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작자의 자책과 회한의 심정이 ‘내가 무슨 죄를 지어 하늘에 밋보였는지, 나에게 내리는 벌이 이다지도 가혹한 것인가?’라는 외침 속에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다.

1. 한글로 쓴 悼亡錄: 金禮淵의 『壽名錄』과 任靖周의 『癸酉錄』

『延安金氏家乘』의 기록에 따르면, 金禮淵은 字가 伯克이며, 號가 訥夫이며, 본관은 延安이다. 연안김씨 內資寺尹公派에 속하며, 延興府院君 金悌男公의 8代孫이다.

김예연은 1795년 15살이 되어 昌寧成氏(1779~1809)와 혼인을 올렸다. 창녕성씨는 승지를 지낸 成種仁의 맏딸이었으며, 그 아래로 여동생만 둘이 있었다. 당시 부인의 아내는 17세였으며, 김예연보다 두 살 연상이었다. 『연안김씨가승』에 따르면, “아내는 昌寧成氏로 父는 承旨 種仁이며, 祖는 贈吏參 惻이며, 曾祖 贈吏議 泰祖이며 外祖는 參奉 驪興閔瑜이다. 己亥年 7월 9일에 태어나 己巳年 8월에 돌아가셨다. 墓는

7) 辛應純, 「內喪記」, 『古文書集成 卷28권, 靈光 寧越辛氏篇 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其春秋止於四十五, 而共牢者, 僅二十五年矣. 余夙多愆凶, 十六哭父, 十九哭母, 越四年喪弟, 越六年喪伯父. 邇來二十餘年, □□其患難, 同貧賤者, 止是室人, 而竟至於此極. 譬如一間屋, 三柱皆仆, 一柱猶立. 其何以爲心哉? 天必欲使病夫狂斃歟? 天必欲使九兒同斃歟? 余之獲戾于天者, 果是何事, 而天之降割, 一至此乎?”

高陽大慈洞針於里甲坐原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이 끝난 부분에 작은 글씨로 “부인은 현숙하고 부녀자의 도리가 있어서, 공께서 이 때문에 수명록을 기록하였다.”(婦人賢淑有閨範, 公爲之記壽名錄)고 쓰여 있다.⁸⁾

창녕성씨는 1809년 8월에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감했다. 15년의 결혼생활 동안 함께 했던 지난 시간들을 김예연이 회상하면서 한글로 부인언행을 기록한 것이 『壽名錄』이다. 책의 이름에서 보듯 부인의 이름을 길이 남기고자 하는 뜻이 들어있다. 아내의 행적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수명록』을 직접 저술했음을 책 이름을 통해 강조하였다. 김예연이 직접 쓴 발문 성격의 글을 먼저 들어본다.

평일에 언행으로 보면 비록 주근 혼이나 반드시 세속의 일은 바요 귀잡신으로 더부러 혼가지로 도라가지 아닐 거시니, 혹 무당이 운운하는 말이 이셔도 일절이 쓰지 말디니 소미(小妹)와 데슈(弟嫂)들은 알아들지어다. 내 조스(早死) 흠을 불상이 너기고 일흠이 민멸흠을 민망이 너겨 약간 평일에 언행을 기록하여 그 일흠이나 오래 전과져 하여 인하여 칙 일흠을 ‘수명록’이라 호노니 그 기록흠이 실상에 지나면 이는 망인을 무함(誣陷)호미오 그 즈세과져 하면 이는 보느 니로 하여곰 지리케 흠이라. 그런고로 각각 혼 일을 들어 정(正)호고 간략히 기록호노니 보느니 혹 치쇼(嗤笑)호느 니도 이시려니와 효측호느 쯤 쯤 족히 법이 되리라.⁹⁾

아내의 언행을 오래 전하고자 책 이름을 ‘수명록’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실상을 과장하여 지나치게 하거나 너무 자세하게 하지 않도록 기술하였음을 밝혔다. 부인의 언행을 서술하는 기본 원칙이 ‘正하고 간략히 기록함’이었다. 그리고 『수명록』의 1차 독자는 아내의 어린 여동생과 弟嫂였다. 창녕성씨는 승지를 지낸 成種仁(1751~?)의 만딸이었으며, 아래로 두 여동생만을 두고 있었다.

『수명록』을 읽고 “효칙하면 족히 법이 된다.”고 하여 집안 여성을 포함한 여성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 교육서로서 읽힐 수 있도록 편찬하였다. 여성 독자를

8) 金鼎秀 編, 『延安金氏家乘』(규장각 소장본) 智.

9) 金禮淵, 『壽名錄』(규장각 소장본) 42칙. 『수명록』은 한자가 없이 모두 한글로 쓰여있다. 인용문에서 괄호 속에 표시한 한자는 본래 원문에는 없는 것으로, 필자가 편의상 필요한 곳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이하 동일하다.

배려하는 뜻에서 저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구에는 () 속에 자세하게 풀이를 해두었다. 이러한 방식은 여성 독자를 위해 편찬 저술한 글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예컨대 “고복(梟復)은 초혼(招魂)하다 말이니 나홀되던 날이라 말” 혹은 “행즉행지즉지(行則行, 止則止)는 홀 날은 썩 하고 그칠 날은 썩 그치다 말”이라고 풀이한 것이 그 한 예이다.

김예연은 부인을 잃은 슬픔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한 바 있는데, 후사가 없는 것,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 그리고 ‘휘언명계[아름다운 말과 붉은 경계라]’를 다시 못 듣는 것이라고 하였다. ‘수명록’을 편찬한 목적은 15년을 동고동락했던 아내의 ‘아름다운 말과 밝은 경계’를 후세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자 함이었다. 이를 위해 아내의 평소 언행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는데, 특히 아내가 작자에게 조언을 하거나 격려하는 말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① 상허 언서(諺書)를 조하하며 또 붓으로 기록하기를 조하하여 너공지가 (女工之暇)에[일하고 나□ □문 겨를] 양 언서 가운데 가히 보암즉 하고 가히 효즉함암즉함 마디 이시면 반드시 초□□야 기록하니 적성권축(積成卷軸)이라 라.[마니 칙권과 두루마리 쓰히단 말]¹⁰⁾

② 상허 글을 번역하여 보기를 조하하여 내 혹 잡되어 기록함이 이시면 반드시 벗겨 보고져 하더니 일일은 문왈, “너즈의 유인(儒人)이라 일컫기는 엇지 함이뇨?” 내 되왈, “벼슬을 못흔 사름의 안히를 일음이니라.” 부인 왈, “유삼척(俞三陟)이[일홈은 한준이니 삼척원 지내니라] 쇼시에 글을 지어 그 부인을 일컫라 곶오되 ‘유인’이라 하니, 처음에 벼슬을 괴약지 못흔고로 그 부인을 유인이라 하더니, 이제는 비록 음관(蔭官)이나[남행] 유인 총호는 면하계였다.” 하니 대개 그 뜻지 과환(科宦)을 간절이 브라 혹 되지 못홀가 녀너하는 고로 이 말이 잇더라.¹¹⁾

『수명록』에서 작자는 학식과 교양이 있는 여성으로 아내를 형상화하였다. 아내는 붓으로 기록하기를 좋아했으며, 한글 책 가운데 본받을 말을 반드시 기록하였다.

10) 金禮淵, 『壽名錄』(규장각 소장본) 25칙.

11) 金禮淵, 『壽名錄』(규장각 소장본) 27칙.

아내는 친정아버지 成種仁으로부터 두 여동생과 함께 글을 배웠다. 成種仁은 1782년 문과에 급제한 후 강진현감, 양산군수, 교리 등의 벼슬을 역임했으며, 1790년에는 書狀官으로 중국을 다녀왔다. 아내의 말을 빌리면, 문장에 뛰어났으며 특히 表策에 능하였다. 친정아버지는 병이 위독했을 때에도 아내를 포함한 세 자매들이 諺書 읽는 것을 들으면서 어려운 한문 구절이 나오는 곳에 이르면 상세하게 풀이를 해주었다. 또한 성종인은 임종할 무렵에도 李恒福이 魯나라 역사를 분류하여 편찬한 『魯史零言』을 창녕성씨를 포함한 세 딸에게 들려주었다. 아내는 친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지난 시절을 회상하면서 “요스이는 이러타시 글을 조히 녀기느 이 잇다 흠을 듯지 못흐니 가히 한심치 아니라?”라고 하였다.

평소 글을 베껴서 읽기를 좋아하였던 아내는 작가가 기록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읽어 보려고 하였고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인용문 ②에서 아내는 ‘孺人’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면서 俞漢雋이 ‘孺人’이라는 말을 사용한 글에 대해 언급하였다. 아내가 언급한 문장은 俞漢雋이 지은 「孺人室記」를 가리킨다.¹²⁾ 유한준은 1760년 29세 때에 아내의 방을 ‘孺人室’이라고 이름 짓고 이 글을 지었다. 유한준은 아직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여 자신을 士라고 하고 부인의 품계를 孺人이라고 하면서 아내가 머무는 안방을 ‘孺人室’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유한준이 삼척부사에 임명된 것은 1796년 8월이다. 관직에 진출하여 벼슬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부인에게 유인이라는 칭호를 붙이는 것을 면하게 되었음을 아내가 지적한 점을 상기하면서, 아내의 본래 의도가 남편이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살이에 나가는 것이었음을 밝혔다. 아내가 자신에게 벼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접적,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작가에게는 더욱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것이다.¹³⁾

문장을 보는 안목이 높고 학식이 있었던 아내에 대한 기록은 『수명록』에서 여럿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집안 여성들과 함께 모여서 한글 책을 읽을 때에 ‘邯鄲廡養之歎’라는 구절에 대해 다들 몰랐고, 작자인 金禮淵도 그 뜻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邯鄲에 살던 才女가 시집가서 마구간 줄개의 아내가 되었다는 뜻으로, 李白이 지은 「邯鄲才人嫁爲廡養卒婦」가 유명하다. 아내는 작자도 알지 못했던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풀이하면서 “녀직 혼인을 잘못흐 디 이 문즈를 쓰느니 언셔에 이 문직 비비유지

12) 俞漢雋, 『自著』 권18, 「孺人室記」, 『한국문집총간』 249, 한국고전번역원, 2001, 297면.

13) 金禮淵은 과거 시험에 여러 차례 응시하였지만 합격하지 못했으며, 평생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하니[종종 잇단 말] 알기 어렵지 아니라”라고 하였다. 학식과 교양이 풍부한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일화이다.

① 내 혹 너침(內寢)하려 하면 문득 읍口(읍)하야 왈, “내 사름의 즈식이 되어 싱블능진효(生不能盡孝)하고 스블능진례(死不能盡禮)하니 디恨(至恨)이 각골(刻骨)이라. 부즈의 말슴을 무어슬 쫓지 아니리오마는 당석(當席)흠에[잠자기를 당하다 말] 이르러는 쇠매지신(衰每在身)하니[거상(居喪)이 몸에 잇단 말이라] 뜻을 맞지 못하리로다. 또 오는 날이 심히 만하니 원컨디 원하논 바를 죠츠 써 일단 애회(哀懷)를 펴게 하시면 싱당윤슈(生當隕首)하고 스당결초(死當結草)하리이다.” 내 감동하야 츠마 뜻을 굿테여 아니호라.¹⁴⁾

② 부인이 병이 드디어 고향지질이 되어 가히 의약으로 다스리지 못홀디라. 본디 치위를 견디지 못하야 미양 식굴 복거[스단 말] 하기를 원하니 대개 취온(就溫)홀 계괴오 쏘는 싱세지심이 업슨 배러라. 슈연부터 미양 반이코져 하야[집 옴단 말] 왈, “쳐소하논 방이 여름에는 폭양이 들고 겨울에는 음한하야 견딜 길 업고 쏘 안팍 스이에 이셔 비편(非便)하논 일이 만타.” 하야 미양 이리 하나 쫘연이 올물 길 업더니 병이 늑그미 화병이 되어 일오디, “이 방을 내 죽근 후에야 면하리로다.” 하더니 맞춤내 이 방에 귀연(几筵)을 베푸니 그 혹 인심이 디령하야 옴고져 하던가 쏘하 몽죄(夢兆) 불길하야 옴고져 하던가? 만싱 할일 업슨지라 슬허하논 엇지 하리오?¹⁵⁾

인용문 ①은 친정 부모에 대한 효성을 드러내는 일화를 다루었는데, 內寢, 즉 아내의 방에서 잠자리를 갖는 것을 소재로 하였다는 점이 특별하다. 인용문 ②에서 아내는 생전에 추위를 잘 타서 시골에서 살기를 바랐고 따뜻한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였다. 당시 살고 있는 방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옮기고 싶다는 뜻을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작자는 아내의 그러한 소박한 꿈을 끝내 이루어주지 못하였다. 더구나 아내가 생전에 “이 방을 내 죽은 후에 면할 것이다”라는 말이 아내 사후에 현실이 되고 말았다. 아내가 생전에 기거하였던, 추위를 잘 타서 옮겨달라고 간청했던 그

14) 金禮淵, 『壽名錄』(규장각 소장본) 9칙.

15) 金禮淵, 『壽名錄』(규장각 소장본) 33칙.

방에 작자는 아내의 귀연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처럼 『수명록』은 아내와 생전에 있었던 구체적이며 일상적인 일화까지 다양하게 수록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死別의 情恨을 애절한 언어로 담아낸 「招魂」을 한글로 창작하여 언행록 뒤에 수록해 놓은 점이다. ‘招魂’은 상을 당하였을 때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혼을 부르는 것을 말한다. 『禮記』 「禮運」편에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 “지붕 위에 올라가 혼을 불러 말하기를, 아아! 아무개여 돌아오라 하고 소리친다.”고 하였다. 문학에서는 屈原 또는 宋玉이 지었다고 알려진 「招魂」이 널리 알려졌고, 우리나라 문인들도 이를 참고하여 초혼 작품을 남기었다.¹⁶⁾ 하지만 한글로 招魂을 노래한 예는 많지 않을 듯하다.

내 호을노 난간에 의지하야 안자 전일에 경력(經歷)하던 바와 그 언행(言行)이 적실하던 줄을 세세이 생각하니 생각이 산절하듯 맞치 먼길 가 니 장춧 이 르러 올듯 □ 르러 올듯 하디 이르지 아니 흠은 쏘 혼 초슈오 □□□□ 【25】 이 흥흥졸졸하야 가히 건너오지 못하는 듯 혼지 □□ 형불가부견(形不可不見)이오 언불가부문(言不可不聞)이라.

드디어 글□□□ □혼(招魂)하니 그 말에 곁오디,

혼혜혼혜(魂兮魂兮)여	혼이여 혼이여
귀래(歸來)시라	도라올지어다
혼혜혼혜(魂兮魂兮)여	혼이여 혼이여
거장안지(去將安之)시오	가 장춧 어디로 가노고
혼혜귀래(魂兮歸來)하라	혼이여 도라올지어다
상유턴창창(上有天蒼蒼)시라	우희 하늘이 이서 창창하도다
턴창창구만리(天蒼蒼九萬里)하니	하늘이 창창하야 구만리 되니
불가등(不可登)시라	가히 올을 길 업도다
혼혜귀래(魂兮歸來)하라	혼이여 도라올지어다
하유디막막(下有地漠漠)시라	알히 썩히 이서 막막하도다

16) 「招魂」의 우리나라 수용과 관련해서는 신두환, 「초사 초혼의 수용과 확산」, 『동방한문학』 76, 동방한문학회, 2018, 133~166면.

디막막삼천계(地漠漠三千界)하니 쓰히 막막하야 삼천계 되니
 불가입(不可入)시라 가히 들어갈 길 업도다

위쪽에 한글로 쓴 초혼을 적어놓고, 아래쪽에는 풀어서 번역을 하였다. 육신을 떠나 멀리 가려는 혼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화자는 외치고 있다. 하늘은 구만리 창창하여 아득하니 올라갈 수 없고, 그 아래 땅 또한 막막하여 들어갈 수 없으니 다시 돌아오라고 절규하였다. ‘혼이여 혼이여 도라올지어’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면서 죽어 떠나간 사람에게 대한 애절한 그리움과 슬픔을 격한 감정으로 토로하였다. 마지막 대목에 이르러 작자는 “혼이여 혼이여 도라올지어다 / 혼이여 도라오면 거의 나를 위로하리로다”라고 끝맺었다.

또 하나 한글로 작성한 悼亡錄으로 주목되는 저술은 『癸酉錄』이다. 『계유록』은 필사본 1책으로,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任靖周(1727~1796)가 아내 光山金氏의 죽음을 애도한 글을 모아놓은 것이다. 임정주는 그의 누이였던 任允摯堂의 문집을 간행했는데, 그때 사용한 활자는 둘째 형이었던 任聖周의 문집 『鹿門先生文集』을 간행하기 위해 조성했던 목활자였다.¹⁷⁾

任靖周가 쓴 묘지명에 따르면, 부인 光山金氏(1727~1753)는 임정주와 동갑의 나이였다. 1744년 18세의 나이에 임정주와 혼인을 하였으며, 그 이듬해에 아들 子烈을 낳았다. 1753년에 쌍둥이를 분만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연이어 병을 얻어 죽었으며, 며칠 뒤에 부인마저 세상을 떠났다. 그때 나이 27세였다.¹⁸⁾

『계유록』 앞장에 작성된 목록에 의하면,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 10편과 발문이 묶여져 있었다. 목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한글 목록: 데문셋, 상병시말, 패서디, 패서후디, 경명들, 서폐함, 서폐독상, 계유록발
- 한자 목록: 祭文三, 喪病始末, 稗書識, 稗書後識, 鏡物二, 書幣函, 書幣竹箱, 癸酉錄跋

17) 강순애, 「윤지당유고 편찬 간행과 목활자의 조성 및 서지적 특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59, 한국서지학회, 2014, 43~64면.

18) 任靖周, 『雲湖集』 권6, 「亡室光山金氏墓誌銘」, 『한국문집총간속』 90, 한국고전번역원, 2012, 553면.

그런데 실제 수록된 작품은 한글 제문 3편과 「喪病始末及行略」, 그리고 誌文 등 총 5편이다. 이 중에서 誌文은 任靖周의 문집 『雲湖集』에 수록된 묘지명 「亡室光山金氏墓誌銘」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계유록』에 수록된 작품은 「제문」, 「싱일의 쏘흔 제문」, 「쇼상 흐로전 쏘흔 제문」, 「상병시말급힝냐」, 「지문」 등 다섯 편이다. 목록에만 있는 작품들(稗書識, 稗書後識, 鏡物二, 書幣函, 書弊竹箱)은 아마도 아내가 평소 보았던 책과 간직했던 물건들을 소재로 하여 아내를 추억하면서 쓴 글로 짐작된다. 이렇게 보면 任靖周가 아내를 위한 여러 편의 글들을 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제문이나 묘지명 이외에 아내가 생전에 보았던 한글 소설이나 아내가 평소 사용했던 물건을 소재로 하여 아내에 대한 추억을 글로써 남겼다는 점이다.

그딤 잇던 바를 보며 그딤 쓰던 바를 만나면 일즉 밍음이 답답햐야 요동함 이 잇는 듯햐며 쏘이 훌훌햐야 즐겁디 아니홀 적 업슬 적이 업서 쎄쎄 답답 햐던 거시 변햐야 도도햐고 훌훌햐던 거시 과햐야 쳐쳐홀 적이 이신즉 그 날 온바 닛단 흠이 진짓 니즌 거시 아니오 밍음 가운데 왕뉠햐는 거슨 종시 가히 업시터 못홀 거시냐 …… 그딤 날을 보려 다시 도라오디 아니햐나 그딤 싱각 흠은 어느 날 니즈리오 …… 슬프다 그딤여 장춧 어느날 날노 햐여곰 닛게 햐려 햐노 닛기 진실노 어려운 거시 아니로디 가히 닛디 못홀 거슨 오디 그딤 밍음의 몹고 몹으며 다뭇 온화코 온화흠이로다.¹⁹⁾

드르니 느즌 밥 후의 훌연히 미음을 츠자 겨유 목의 느리며 쏘 츠자 이테로 햐기를 서너 츠레를 햐다가 미음이 힘 업다햐야 급히 국밥을 츠자 두어슬 느리오며 누어 인햐야 인스를 출리디 못햐고 입 가운데 말소릭 잇는 듯햐디 희미햐고 어즈러워 즈세터 못햐더라 햐니 그대 처흠을 일노 밀우여 가히 알거 시어늘 능히 햐가지 보딘홀 약을 시험터 못햐고 이 어린 짝을 일흐니 비록 스나히 듯센 창뀨들 이에 니르러 엇디 시러곰 척척히 썩거지고 슬허흠이 업스리오.²⁰⁾

전자는 아내의 小祥을 맞이하여 잊지 않는 작자의 애뜻한 마음을 표현하였으며,

19) 任靖周, 「쇼상 흐로전 쏘흔 제문」, 『癸酉錄』(한글박물관 소장본)

20) 任靖周, 「상병시말급힝냐」, 『癸酉錄』(한글박물관 소장본)

후자는 아내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모습을 묘사하였다. 작자는 그때 다른 일로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약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 자책감 속에서 다른 이의 전하는 바에 의거하여 아내의 마지막 생의 순간을 소상하게 기록하였다.

誌文(묘지명)의 필체와 앞에 수록된 글의 필체가 다른 점, 목록에는誌文이 빠져 있는 점, 그리고誌文에는張數 표시를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誌文 앞의 글들이 먼저 작성되고,誌文은 그 이후에 덧붙여진 것으로 추정된다.誌文이 임정주가 쓴 한문 작품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라면, 그 앞에 실린 네 작품 또한 한문 작품을 한글로 번역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誌文을 제외한 나머지 글들의 한문 작품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언급한대로 지문과 그 앞의 글들이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원래 한글로 작성된 작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목록에만 있는『계유록』 발문이 전하고 있지 않아, 이 책이 임정주가 직접 편찬한 것인지 혹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편찬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²¹⁾

2. 한문으로 엮은 悼亡錄: 任再堂, 沈魯崇, 南鵬海

임재당의『갑진일록』은 도망시문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다루거나 바깥출입을 하며 지내는 자신의 일상을 함께 다루었다. 그 점에서 다른 도망록과는 구별된다. 하지만 아내의 죽음으로부터 기록이 시작되어 아내 죽음 이후 작자의 심리와 감정이 어떠한가를 솔직하고 토로하고, 자신이 죽기 전까지 그러한 작가의 감정을 낱말이 기록한 일기로는 거의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여기에서 다루는 도망록의 범위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임재당의『갑진일록』과 심노승의 도망문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에서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임재당과 심노승 도망록의 유사한 점을 지적하기로 한다.²²⁾

1792년 5월 아내와 셋째 딸이 연이어 세상을 떠난 이후 沈魯崇(1762~1837)은

21) 현재 전하는『雲湖集』은 1817년에 목활자로 간행된 것인데, 시는 한 편도 실려 있지 않고 다른 여러 저술들도 많이 누락되어 있다. 편찬과정에서 임정주의 많은 글들이 실리지 않았으며,『계유록』 목록에 나오는 글 가운데 오직 墓誌銘 한 편만이『雲湖集』에 실려 있을 뿐이다.

22) 임재당의『갑진일록』과 심노승의 도망시문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루어졌다.

1794년 5월까지 2년여 간 아내 兪州李氏(1762~1792)의 죽음을 애도하는 작품을 집중적으로 창작하였다. 26題의 한시와 23편의 文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일부의 글을 『枕上集』, 『眉眼記』로 엮었다.

심노승이 아내를 애도하는 방식은 『갑진일록』을 남긴 임재당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집’을 완성하기 직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비슷한 점을 갖고 있다. 두 사람이 새로운 삶의 지향과 행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집’을 문학의 소재로 활용하였던 점이 흥미롭다. 심노승은 『新山種樹記』에서 ‘집’의 상징성을 통해 아내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표현하였으며, 임재당 또한 『갑진일록』에서 생전에 함께 만들고자 하였던 집을 결국은 아내가 죽은 뒤에 완성하는 과정에서 작자의 슬픔과 애도의 정서를 매우 곡진하게 표현하였다. 집은 아내와 함께 고생을 하며 행복을 나누었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담아 과거를 떠올리고 추억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미완성인 채 남겨진 집과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집이라는 공간은 『갑진일록』 속에서 작품의 주요 소재로 계속해서 등장한다.²³⁾

두 사람에게 보이는 애도의 또 다른 공통된 점으로 통상적 애도 방식을 거부하고 오랜 기간 죽은 아내에 대한 애도를 지속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심노승은 1794년 5월까지 2년간 도망시문을 집중적으로 창작하였다. 임재당의 『갑진일록』은 1724년 6월 20일부터 1726년 5월 1일까지 2년 11개월 기간 동안 작성되었다. 임재당은 일기가 종료된 5월 1일 이후 2개월여 지난 1726년 7월 11일에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임재당은 죽기 직전까지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홀로 남은 슬픔을 일기의 형태로 남겼다.

또한 임재당과 심노승은 통상적인 애도 방식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심노승은 『新山種樹記』의 마무리 부분에서 통상적인 애도의 방식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서술하였다. 후자가 삶을 도모하지 않고 죽은 뒤의 계획만을 생각하는 것의 잘못을 지적하자, 심노승은 죽으면 알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참을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²⁴⁾ 또한 심노승은 죽은 사람에게 지각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23) 이에 대해서는 정우봉, 「임재당의 갑진일록에 나타난 죽음과 애도」, 『한문학논집』 56, 근역한문학회, 2020, 103~132면.

24) 沈魯崇, 『孝田散稿』 6책, 『新山種樹記』, “或曰, ‘子且不謀生, 而爲死後計. 死而無知, 何計之爲?’

끊임없이 탐구하였다. 「亡室大祥前一日告文」²⁵⁾라는 글에서 심노승은 “과연 죽은 사람에게 지각이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죽은 사람의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죽은 자에 대한 기억과 슬픔의 정도는 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산 사람은 이제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을 접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다. 프로이트는 애도의 기간이 1~2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았는데, 일정한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 인간이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노승은 통념적인 이해와 달리 죽은 자의 지각과 산 사람의 슬픔이 비례 관계라고 주장하였다. 살아있는 사람의 슬픔이 크면 그만큼 죽은 자의 지각도 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중신토록 슬픔을 잊지 않는다면 죽은 자의 지각 또한 끝까지 어둡지 않다고 하였다.

南一元(1834~1894)의 『悼亡詩卷』은 아내의 悼亡詩를 모아놓은 책인데, 현재 그 행방을 확인할 수 없다. 남일원의 행적은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무관직의 무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의 자는 景根, 호가 鵬海로 본관은 宜寧이다. 南允元和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韓命源, 閔應植, 李冕相, 俞萬柱 등과 교유하였다. 남일원은 『도망시권』 이외에 申光洙의 「關西樂府」를 참고하여 쓴 악부 작품 「統海百八詞」를 남겼으며, 소설 『옥수기』를 한글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그가 편찬한 『續千字』가 전한다.²⁶⁾

俞萬柱(1832~?)가 이 책에 붙인 서문을 통해 남일원이 창작한 『悼亡詩卷』의 개략적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俞萬柱의 서문을 들어본다.

기축년(1889) 정월 아침에 일어나 방문을 열어보니 하얀 눈이 마당에 가득했다. 아이를 불러서 屠蘇酒를 데워 남은 몇 잔을 마시기를 마쳤다. 봉해의 시권을 꺼내 붓 가는대로 권점을 찍고 평을 하니 마치 산음 땅의 길을 걸으면 산천이 눈부시게 비쳐 이루 다 볼 겨를이 없는 것과 같았다. 산이 솟아나고 물이 흘러가는 기세는 비록 세세하게 살피지 못했지만 문득 몸이 기이한 곳에 이르

余曰, 「謂死無知, 是余所不忍也。」

25) 沈魯崇, 『孝田散稿』 6책, 「亡室大祥前一日告文」

26) 南一元의 행적과 그가 남긴 대표작 「統海百八詞」에 대해서는 이은주, 「통해백팔사의 지방 형상화 연구」, 『한국한문학회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449~475면 ; 박진백, 「남일원의 통해백팔사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5, 1~201면.

렸음을 깨달았다.

황산곡이 말하기를 “시는 반드시 상황을 만난 이후에 쓰인다.”고 하였다. 봉해가 만약 부부의 인연을 잃지 않았다면 어찌 이러한 대작을 쓸 수 있었겠는가? 100운으로 쓴 王建의 「궁사」는 혹 너무 많다고 싫어하겠지만, 이 시권은 백 편이 되니, 도망시가 있는 이래로 전에 없던 것이다. 어찌 그리도 풍부하단 말인가. 시가 백 편에 이르면 비록 옛날 대가라고 할지라도 장점과 단점이 서로 가려주지 못함을 면치 못하였으니, 이 책은 마땅히 너그럽게 보아야 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투철하며 뜻을 표현한 것이 우뚝하여 잘 살펴보면 孟郊의 심오함이 있고 감발하여 보면 賈島의 울림이 있다. 절세의 기이한 작품이라고 이를 수 있다. 혜환산방에서 취하여 쓰다.²⁷⁾

남일원은 가족사적 불행이 끊이지 않았다. 11세 때인 1844년 어머니를 여의었고, 18세 때에는 부친이 세상을 떠났다. 이어서 남일원의 아내 淸州韓氏(1832~1856)가 불과 2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게다가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도 없었다. 연이어 닥친 불행으로 인해 남일원은 이후 30여 년의 세월을 여기저기 떠돌면서 지냈다. 『옥수기』의 한글 번역을 민응식으로부터 24살 때에 부탁을 받고, 최종 완성을 한 것은 그로부터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 남일원이 벼슬에 나간 것은 1885년 이후이며 칠원현감, 오위장, 내금위장 등을 지냈다.

유만주는 남일원의 『도망시권』을 읽으면서 黃庭堅의 “詩必待境而後生”을 인용하였다.²⁸⁾ 이 말은 객관 사물에 대한 이해, 문학 창작 법칙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發興於所遇’(黃庭堅이 「大雅堂記」에서 언급한 것임)하여 자연스럽게 감흥을 표현하는 것이 시 창작에서 중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다른 말로 평소의 축적과 외부 사물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해 ‘無意於文’에 이르러야 한다는 뜻으로, 작위적이며 가식

27) 俞萬柱, 『白蘗先生詩抄』(규장각 소장본) 2책, 「題南鵬海悼亡詩卷後」, “己丑元月, 朝起開室, 皓雪盈庭, 呼兒煮屠蘇釀, 餘數觥醕罷. 抽鵬海詩卷, 信筆點評, 如行山陰路上, 山川映發, 應接不暇. 凡其流峙之勢, 雖未及細檢, 而便覺身造異境矣. 黃山谷曰, 詩必待境而後生.’ 鵬海若不失此奇偶, 焉應有此鉅什? 王建宮詞百韻, 或嫌其太多, 此卷乃百篇, 自有悼亡詩以來未曾有. 何其富也? 詩至百篇, 雖古大家, 難免乎瑕瑜不相掩也. 此則在所當恕, 而惟其性靈透悟, 用意巉劃, 故鉤之則東野之奧, 激之則有浪仙之響, 槩謂絕世奇作, 可也. 兮囊山房醉墨.”

28) 黃庭堅의 「論作詩文」에 나온다. 그리고 이 말은 楊載의 『詩法家數』 등에도 수록되어 있다. “山谷曰: 詩不可鑿空強作, 待境而生, 便自工耳”

적인 창작을 배경한다.²⁹⁾ 유만주는 황정건의 말을 끌어와 남일원이 도망시 100수나 되는 많은 분량을 창작할 수 있었던 것을 설명하였고, 이어서 남일원의 도망시를 왕건의 宮詞와 빗대어 설명하였다. 王建은 宮詞中興의 시조로 일컬어진 시인으로, 궁사 100수 연작에서 임금과 궁녀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폭넓게 다루었다. 궁중암투를 넘어서 궁중의 생활과 풍속, 즉 ‘宮中行樂’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높이 평가된다. 왕건의 宮詞가 혹 100수나 되어 많다고 혐의할지 모르겠지만, 남일원의 100수 도망시 연작은 작가의 개성이 잘 발휘되었고, 뜻을 표현한 것이 우뚝하여 도망시로서 유례가 없는 절세의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아쉽게도 도망시 100수의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연이은 가족사적 불행 속에 자식도 두지 못하고 아내를 잃은 작자의 슬픔이 잘 표현된 연작시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도망시 작품을 100수 연작의 형태로 창작한 것은 다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특별히 기억될 필요가 있다.³⁰⁾

Ⅲ. 조선후기 悼亡錄 편찬의 의미

일반 悼亡詩文에서 아내에 대한 감정의 표현은 대체로 賢과 德이라는 예교 관념에 의거하여 의례적인 애도와 칭송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아내에 대한 애뜻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용성과 규범성에 긴박되어 아내에 대한 슬픔의 감정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에 비해 도망록을 엮은 작자들의 경우에는 죽은 아내에 대한 감정을 매우 솔직하게 표현하였고, 생전 아내의 자살한 일상을 추억하는 면모를 보였다. 도망문학에 있어 제재의 일상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부간 일상생활의 자질구레한 단면들을 재생함으로써 아내와의 생전 추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심노승은 「亡室實記序」에서 “實記란 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덕성과 언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단지 사실에 입각해 年譜의 방식처럼 기록한다”³¹⁾고 하였다.

29) 顧易生 外, 『宋金元文學批評史(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6, 206~207면.

30) 임재당 또한 『감진일록』에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의 감정을 도망시를 통해 표현했는데, 그 작품수가 100여 수를 넘는다.

沈魯崇은 『亡室實記』라는 책을 따로 엮었는데, 아내의 덕성과 언행을 언급하지 않고 다만 사실에 의거하여 年譜처럼 기록한 것이라고 하였다. ‘사실’을 기록함을 강조하였는데, 심노승 자신의 자서전인 『自著實記』에 비견된다. 심노승은 아내의 언행을 미화하지 않고 사실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겠다는 서술 태도를 지녔으며, 기존 언행록이 지닌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年譜 형식의 글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결혼하기 전의 사실은 장인에게서 들은 것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책을 한글로 번역하여 딸에게 전해 주었다는 사실이다.³²⁾ 또한 심노승은 아내를 위해 쓴 「言行記」에서 학식, 교양을 갖춘 여성의 면모를 부각시켰으며, 상하위계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간의 신뢰와 의지, 조언을 하는 知己로서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작자는 아내와 생전에 있었던 일화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웃음과 해학으로 격의 없이 지냈던 점을 인상적으로 묘사하였다.³³⁾ 이 점이 심노승의 도망문 창작에서 주목되어야 할 부분의 하나이다.

김예연 또한 아내의 언행을 기록한 『수명록』을 편찬하면서 “실상에 지나면 이는 망인을 무함(誣陷)함미오 그 주세과져 함면 이는 보느 니로 히여곰 지리케 흠이라. 그런고로 각각 함 일을 들어 정(正)함고 간략히 기록함노니”라고 한 바 있다. 실상을 과장하여 기록하는 것이 망인을 誣陷하는 것, 즉 없는 사실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남을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예컨대 부인이 친상 중에 있을 때에 아내가 잠자리를 갖는 것을 거부하는 뜻을 밝혔던 일화를 기록한 점이 대표적 사례이다. 친정 아버지에 대한 아내의 효성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이 있지만, 아내의 방에서 잠자리를 갖는 것을 소재로 하였다는 점에서 실상에 충실하게 아내의 언행을 기록하고자 하였던 작자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조선후기 도망록의 편찬이 지니는 의미 중의 하나는 통상적인 애도 방식에서 벗어나 아내의 죽음에 따른 슬픔을 솔직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이다.

31) 沈魯崇, 『孝田散稿』 7책, 「亡室實記序」, “實記者記其實也, 不及德性言行, 只就其事實, 而記之如年譜.”

32) 沈魯崇, 『孝田散稿』 7책, 「亡室實記序」, “遂就君平生, 略記之. 未歸于余, 聞于外舅. 及其歸余, 皆與余共書, 編年月頗詳. 諺譯示女兒, 俾藏之.”

33) 아내의 언행기를 남긴 작품 중에서 俞彦鎬의 작품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서는 박영민, 「유언호의 도망문을 통해 본 18세기 후반 가족문화의 한 양상」, 『한국사학보』 76, 고려사학회, 2019, 63~96면.

심노승과 임재당, 그리고 남일원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그들에게 있어 죽은 아내에 대한 애도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끝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자가 살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잃은 고통은 일정한 시간과 정해진 절차가 지나고 나면 잊혀지고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옴으로써 치유되는 성질과는 다르다. 그들에게 있어 아내 상실의 고통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끌어안고 함께 지내야 할 삶의 일부인 것이다. 물론 도망록을 남기지 않은 여러 많은 사람들 또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낸 고통을 잊은 것은 아닐 것이다. 제문, 묘지명, 행장 등을 통해 그들 각자가 느끼는 애도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심노승, 임재당, 그리고 남일원의 경우에는 그 같은 통상적인 사람들의 애도와는 일정하게 구분이 되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고통이 잊으려고 노력한다고 완전히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프로이트의 말을 빌리면, 작자의 이러한 태도는 애도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의 철학자 데리다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있을 때, 그에 대한 애도도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하면서 애도는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완성이나 종결은 없는 것’이 애도라고 했다. 역설적이게도 ‘잘 실패해야’ 성공한 애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슬픔에는 끝이 없어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애도일지 모른다는 것이다.³⁴⁾

임재당의 『갑진일록』과 심노승의 도망시문, 그리고 남일원이 남긴 100수의 도망시에서 보여주는 애도 방식은 ‘끝없이 계속되고’ ‘완성이나 종결이 없는’ ‘실패한 애도’이다. 그들은 애도 작업에 실패한 채 죽은 아내와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그리움을 토로하였다. 『갑진일록』이라는 일기는 그 점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아내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작자 본인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끝이 나는 애도의 지속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갑진일록』이다. 그리고 작자의 이러한 애도 방식은 沈魯崇의 그것과 유사하다. 심노승 또한 “죽은 사람은 무지하다는 말을 참을 수 없다”고 한 바 있으며, 1792년부터 179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다양한 형식의 도망시문만을 집중적으로 창작하였다. 파주에 머물면서 告文, 祭文, 序, 記, 原, 墓誌 등 다양한 문체를 동원하여 애도를 표하였으며, 1794년 5월 제주목사로 부임한 부친을 보러

34) 이에 대해서는 왕철, 「프로이트와 데리다의 애도 이론」, 『영어영문학』 58(4), 영어영문학회, 2012, 783~807면 ; 왕은철, 『애도 예찬』, 현대문학, 2012, 1~402면.

제주도로 내려가는 도중에도 해남현 대둔사 관음각에서 아내를 위해 불공을 올리고 「大屯寺觀音供飯記」를 지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1796년에 지은 「朴媪傳」에서는 박보살의 이야기 속에다가 아내를 그리워하는 내용을 집어넣기도 하였고, 세월이 흐른 1816년 12월 논산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에 「告亡室墓文」을 지었다. 아내 사후 24년이 지난 뒤였다. 그리고 심노승은 죽은 아내의 환갑일을 맞이하여 아내 사후 30년이 지난 1822년에는 4언체 40구의 「亡室周甲日寢參告文」을 창작하였다.

또 하나 조선후기 도망록의 편찬에서 주목할 점은 한글 도망록의 존재와 관련된 여성 교육의 문제이다. 김예연은 『수명록』을 지으면서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 지었는데, 그 이유는 집안 여성을 포함해 여성 독자들에게 널리 읽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성 독자를 고려하여 어려운 단어에는 뜻을 친절하게 풀이하기도 하였다. “효칙하면 족히 법이 된다.”는 김예연의 말은 이러한 여성 교육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한글박물관에 소장된 『계유록』은 그 편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任靖周가 아내를 위해 쓴 여러 편의 글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추정하건대 임정주가 한문으로 지은 것을 누군가가 한글로 번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임정주의 문집에 수록된 「亡室光山金氏墓誌銘」을 통해 『계유록』에 수록된 글이 한문 묘지명의 번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의 다른 글(「제문」, 「싱일의 쏘흔 제문」, 「쇼상 흐로전 쏘흔 제문」, 「상병 시말급헝냐」)은 지금 전하는 문집이나 관련 문헌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한문으로 쓰인 것을 한글로 번역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본래 『계유록』에는 발문도 수록되어 있고, 아내가 평소 사용하던 책이나 물건을 소재로 한 글도 있었는데, 한글 박물관 소장본에는 이들이 빠져 있다. 적어도 임정주가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쓴 도망문들을 하나의 단행본으로 묶었던 것은 확실하며, 여성 독자를 고려하여 한글로 번역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沈魯崇 또한 『망실실기』를 한문으로 작성한 후 딸을 위해 한글로 번역하였는데, 현재 한글로 번역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망실실기서」에서 심노승은 딸이 이제 10살밖에 안 되었는데, 아내의 생전 모습을 사실에 입각하여 서술한 이 책을 한글로 번역함으로써 “딸이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신의 어머니의 평생에 대해 어렵듯하게나마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³⁵⁾다고 하였다.

35) 沈魯崇, 『孝田散稿』 7책, 「亡室實記序」, “使渠至老死而得其彷彿於其母之平生者, 其在斯歟?”

IV. 마무리

悼亡錄은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들을 모아놓은 단행본 저술을 가리킨다.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을 悼亡文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도망문은 한시 형식의 悼亡詩이거나 祭文, 墓誌銘, 行狀 등의 형식을 취한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통상적인 애도의 방식과 다른 방향으로 도망문을 창작하는 경향이 새롭게 확대되어 나타난다.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현상으로 도망록의 편찬에 주목하였다. 도망시나 도망문을 묶어서 하나의 단행본 형태로 편찬하는 것이 조선후기에 이르러 나타난 주목할 변화의 하나이다. 沈魯崇의 『枕上集』 및 『眉眼記』는 자신이 쓴 도망시와 도망문을 단행본의 형태로 묶은 것이다. 때로는 한문으로 작성된 도망문들을 한글로 번역하여 책으로 묶기도 하고, 아내의 언행을 한글로 작성하여 책으로 엮기도 하였다. 金禮淵의 『壽名錄』은 한글로 쓴 부인언행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任靖周가 아내의 죽음에 대해 기록한 悼亡文을 한글로 번역하여 엮은 『癸酉錄』이 특별하다. 南一元은 悼亡詩 100수 연작시를 짓고, 俞萬柱에게서 서문을 받았다. 아쉽게도 작품은 현재 확인되지 않지만, 100수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도망시를 창작했다는 사실은 任再堂이 『갑진일록』에 102수에 이르는 도망시를 남긴 것과 함께 도망시문의 문학사적 흐름 속에서 기억해야 할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자료를 중심으로 조선후기의 도망록 편찬 및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 청나라 때에 이르러 冒襄이 지은 『影梅庵憶語』 등에서 보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이후 그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쓴 憶語體 산문이 유행했는데, 이들 작품들과의 비교 검토는 앞으로 진행해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에 기초하여 그들 사이의 내밀한 감정을 표현하고 일상생활의 자잘한 면모들을 제재로 끌어들이고 있는 점 등은 여기에서 검토한 도망록과 청나라 憶語體 산문 사이의 유사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들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더 면밀하게 비교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辛應純, 『省齋集』 영인본, 보경문화사, 1986
- 任再堂, 『甲辰日錄』, 후손가 소장본
- 沈魯崇, 『孝田散稿』, 연세대 소장본
- _____, 『孝田散稿』, 영인본, 학자원, 2014
- _____, 『南遷日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沈魯巖, 『弟田遺稿』, 규장각 소장본
- 金禮淵, 『壽名錄』, 규장각 소장본
- 金鼎秀 編, 『延安金氏家乘』, 규장각 소장본
- 任靖周, 『癸酉錄』,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 _____, 『雲湖集』, 한국문집총간속 90
- 俞萬柱, 『白蘂先生詩抄』, 규장각 소장본
- 南一元, 『統海百八詞』, 장서각 소장본
- 沈能淑, 『玉樹記』, 규장각 소장본
- 金元行, 『溪湖集』, 한국문집총간 220
- 俞漢雋, 『自著』, 한국문집총간 249
- 俞彥鎬, 『燕石』, 한국문집총간 247
- 成海應, 『研經齋全集』, 한국문집총간 225
- 李匡師, 『圓嶠集』, 한국문집총간 22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학진흥연구사업운영위원회 편, 『古文書集成 제28권, 靈光 寧越辛氏篇 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왕은철, 『애도 예찬』, 현대문학, 2012
- 이은영, 『예와 정의 조화와 변주』, 역락, 2013
- 정우봉, 『조선후기의 일기 문학』, 소명, 2016
- 데이비드 스위처 저, 최혜란 역, 『모든 상실에 대한 치유, 애도』, 학지사, 2011
- 베레나 카스트 저, 채기화 역, 『애도』, 궁리, 2015
- 캐벌러 애들러 저, 이재훈 역, 『애도: 대상관계 정신분석의 관점』,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9
- 冒襄 外, 『景梅庵憶語 浮生六記 外』, 長沙: 岳麓書社, 1991
- 張潮 저, 이민숙 외역, 『虞初新志』, 소명, 2011
- 顧易生 外, 『宋金元文學批評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6
- 大木康, 『冒襄と景梅庵憶語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2010

- 강순애, 「윤지당유고 편찬 간행과 목활자의 조성 및 서지적 특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59, 한국서지학회, 2014
- _____, 「운호 임정주의 자필 서간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61, 한국서지학회, 2015
- 김미영, 「죽은 아내를 위한 선비의 제문 연구」, 『실천민속학연구』 8, 실천민속학회, 2006
-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6
- _____, 「조선후기의 명칭소품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양상」,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 김현, 「운호 임정주의 이기심성론」, 『동양철학연구』 14, 동양철학연구회, 1993
- 김홍백, 「이광사의 아내 애도문에 나타난 형식미와 그 의미」, 『규장각』 35,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 박규홍, 「시어 분석을 통한 임재당 도망시의 특성 고찰」, 『동아인문학』 45, 동아인문학회, 2018
- 박다원, 「심노승 도망문에 나타난 죽음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국학연구논총』 22, 『택민국학연구원, 2018
- 박무영, 「18세기 제망실문의 공적 기능과 글쓰기」, 『한국한문학연구』 32, 한국한문학회, 2003
- _____, 「이광사 제망실문의 연구: 18세기 제망실문 연구의 일환으로」, 『국어국문학』 138, 국어국문학회, 2004
- 박영민, 「유언호의 도망문을 통해 본 18세기 후반 가족문화의 한 양상」, 『한국사학보』 76, 고려사학회, 2019
- 박진백, 「남일원의 통해백팔사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5
- 신두환, 「초사 초혼의 수용과 확산」, 『동방한문학』 76, 동방한문학회, 2018
- 양승민, 「국문 창작 가전체소설 화왕본기와 그 한문번역본」,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 왕철, 「프로이트와 데리다의 애도이론」, 『영어영문학』 58(4), 영어영문학회, 2012
- 이은주, 「신광수의 관서악부의 대중성과 계승양상」,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0
- _____, 「통해백팔사의 지방 형상화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 임미정, 「임재당의 도망시 연구」, 『열상고전연구』 61, 열상고전연구회, 2018
- 임재당, 『나 죽어서 당신 만나면 이 슬픔 그치겠지요』, 조원경 역, 코람데오, 2015
- 정수미, 「조선시대 제망실문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13, 동양한문학회, 1999
- 정승모, 「성재 신운승의 내상기를 통해본 17세기초 상장례 풍속」, 『장서각』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 정우봉, 「임재당의 갑진일록에 나타난 죽음과 애도」, 『한문학논집』 56, 근역한문학회, 2020
- 최배영, 「성재집을 통해본 내상의 의례와 음식 연구」, 『차문화 산업학』 45, 국제차문화학회, 2019
- 최연미, 「임윤지당의 생애와 윤지당유고」, 『서지학연구』 17, 서지학회, 1999

- 한새해, 「효전 심노승 도망문에 대한 일고」, 『한문고전연구』 32, 한국한문고전학회, 2016
- 황수연, 「17세기 제망실문과 제망녀문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0, 한국한문학회, 2002
- _____, 「조선후기 제문 연구: 여성 대상 제문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25, 대동한문학회, 2006

Compilation and Meaning of Books Mourning the Wife in the Late Joseon Dynasty

Chung, Woo-bong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veal the characteristic aspects of the author's attitude toward his wife's death and his writing style with the main subject of Domanglog(悼亡錄) in the late Joseon Dynasty. Domanglog(悼亡錄) here refers to the writing of a book that mourns the death of his wife. Poems and prose mourning the death of his wife are called Domangmoon(悼亡文). Generally, Domangmoon is a Chinese poem, or takes the form of a prose, such as a jemun(祭文), myojimyeong(墓誌銘), haengjang(行狀). In addition, the condolence sentences written in Chinese were translated into Hangul, and they were bound in books, and the words and words of his wife were written in Hangul. This was distinguished from the previous condolence poetry and prose(悼亡詩文), and was named Domanglog(悼亡錄). From the 18th century onwards, the tendency to create Domangmoon(悼亡文) in a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usual way of mourning appears newly expanded. As an important phenomenon showing new changes, we would like to pay attention to the compilation of Domangmoon(悼亡文).

Key Words : Poems mourning the wife, Prose mourning the wife, Books mourning the wife, Domanglog(悼亡錄), Domangmoon(悼亡文), Sim No-sung, Im Jeong-ju, Kim Ye-yeon, Nam Il-won